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91.00	↓ 코스닥	824.54
	(-5.51)		(-5.20)
↓ 금리 (미국 9년)	3.220	↑ 환율 (원/달러)	1326.30
	(-0.053)		(+1.50)

전기차 주도권 사활... 현대차그룹,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尹, 중대본 회의 주재 코로나 엔데믹 선언 위기경보 경계 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심각’ 경보를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 7일→5일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해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의 해제를 선언했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영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현대차, 인도에 10년간 3조 투자
韓美 이은 전기차 생산거점 활용
美 조지아주 HMGMA 건립 중
2026년부터 年 30만대 양산
울산에도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공략을 위해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빠르게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미와 한국에 이어 세계 최대 자동차 신흥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에도 전기차 생산기지 구축에 나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판 매법인은 첸나이 공장이 있는 남부 타밀나두 정부와 전기차 생태계 구축 관련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투자 규모는 최대 10년간 1500억~2000억루피(2조4000억~3조2300억원) 수준이다.

앞서 현대차는 2021년 인도에 400억 루피(62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2028년까지 전기차 6종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은 2년 전 밝힌 투자 계획보다 액수가 더 늘어 신형 전기차 등 관련 목표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현지 매체는 현대차의 투자

액 대부분은 전기차 생산과 생태계 구축, 수소전기차 기술 개발 등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가 이처럼 인도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시장 부진을 만회하고 인도를 한국과 미국에 이은 또 다른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 현대차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의 지난해 인도 시장 판매 대수는 55만2511대로, 2021년보다 9.4% 증가했다.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함에 따라 현지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지난 1998년 남부 첸나이에 1공장을 짓고 2008년 2공장을 세워, 연간 7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현재 진행 중인 제너럴모터스(GM)의 마하라슈트라주 탈레가온 공장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연산 85만대 안팎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추가 투자로 공급 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인도 전기차 공장 건설에 나서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은 더욱 향상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짓고 있다. 애초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우정비행’

70주년 기념 로고를 부착한 한국 공군 KF-16(왼쪽 2대), 미국 공군 F-16(오른쪽 2대) 전투기가 제주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딘 헤스 대령은 6·25전쟁 항공전 영웅이며 1,000여 명의 전쟁고아들을 구출하는데 기여했다.

11일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딘 헤스 대령 8주기 추모식에서 한미동맹

/뉴시스

2025년 내 완공해 2026년 양산 본격화 계획을 2024년 내 완공해 2025년 양산 본격화로 1년 앞당겼다. 이 곳은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를 양산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도 현대차·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나섰다. 현대차는 울산 공장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식량 중요 매개체 ‘꿀벌’, 전국서 208억 마리 사라져

(56.3%)

밥상 덮친 기후위기

이상기후에 식물 재배 힘들어져
정부, 민·관 전문가 협의체 발족
꿀벌 실종 따른 농산물 피해점검

기후위기가 거창한 캠페인성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위협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 기온상승과 꿀벌의 실종이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밥상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추세여서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정부는 식량위기를 가져오는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식물 재배



광대나물꽃에 꿀벌이 앉아 꿀을 따고 있다. 꿀벌 개체수 감소는 식물 생태에 영향을 크게 미쳐 장기적으로는 식량난까지 일으킬 수 있다. /뉴시스

가능일수는 매년 길어져 2020년 기준 258.7일에 이르러 30년 전인 1993년 대비 240.0일 대비 18일 이상 길어졌다. 그러나 전반적인 평균 기온 상승은 물론 폭염과 한파가 길어지고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며 실제로 안정적인 작물 재배는 과거보다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상기후로 실종된 꿀벌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11일 발족했다. 앞서 9일에는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작황 불량으로 불안정한 시세가 예측되는 농산물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꿀벌의 실종’이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올해 약 208억여 마리, 전체의 56.3%에 달하는 꿀벌이 사라졌다. 지난해 전국 39만517개 벌통에서 60억 마리가 없어진 것보다 피해 규모가 3배 커졌다. 가장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곳은 경북지역으로 25만 7339개 벌통의 꿀벌 50~75% 가량이 사라졌다.

정부는 민관 합동 협의체 ‘지속 가

능한 양봉산업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하고 김경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꿀벌의 실종은 단기적으로 꿀시세를 올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생산 농가와 원예·종묘업계에 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빠른 회복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밀한 사육현황 조사 방법을 정하는 등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통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또 사육밀도 관리, 밀원 수 확보 방안, 농약·살충제 등이 양봉에 미치는 영향과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방안 등 중장기 발전 방향과 연구개발(R&D)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차기 총선... 정부여당 지원 44% 정부여당 견제 43%
▲ 한 총리, 규제역에 “살처분, 출입통제, 소독 방역 만전 기하라” /사진 뉴시스

▲ 흩어져 있던 해외 법령정보 한데 모인 다
▲ 윤재옥 “민주 전대 돈봉투·코인 의혹... 우리도 더 엄격해져야”



▲ 윤상현, 김재원·태영호 징계에 “조기수습 못한 리더십 아쉬워” /사진 뉴시스
▲ 민주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의혹은 치보며 덮으려 하니”